

“우린 행복한 먹방”...똥4가 밝힌 #5주년 #원동력 #위기

국내 대표 먹방 콘텐츠 ‘맛있는 녀석들’ 5주년 “진짜로 먹는 걸 좋아해...녹화 기대되고 설레”

“저희는 푸드파이터 먹방이 아니라 푸드러버 먹방이에요. 저희는 저희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행복하게 먹어요.” (유민상)

국내 대표적인 먹방 콘텐츠 ‘맛있는 녀석들’이 방송 5주년을 맞이했다. 시청자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유쾌한 웃음까지 안겼던 ‘똥4’ 출연진이 5주년을 맞이한 소감과 그간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는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방송 5주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민상 김준현 김민경 문세윤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맛있는 녀석들’은 맛 좀 아는 녀석들의 친절하고 고급 먹방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방송됐다. 그간 ‘맛있는 녀석들’은 신선한 먹방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매회 레전드 먹방 영상은 물론 ‘먹방요정’ ‘먹방 어벤저스’로 활약해온 똥4의 활약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맛있는 녀석들’은 2018년 케이블방송대상 예능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지난 2019년 3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도 선정됐다. 또 지난해 한국 음식 관광홍보대사료도 위촉됐다.

또한 최다 조회수로는 800만 뷰를 기록했고, 유튜브 구독자수는

70만명을 넘어선 기록을 갖고 있다.

이날 먼저 유민상은 “프로그램이 더 오래 가기를 원한다. 이번이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5주년 맞이해서 여러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5주년 원동력에 대해서는 “일단 당연한 얘기인데 시청자 분들께서 귀여워해주시고 사랑해주셨다. 똥똥이 네 명이 밥먹는 거 누가 보나 했는데 잘 봐주시더라. 길어야 2회 정도로 봤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5주년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민상은 팀워크에 대해 “저희 네 명 봤을 때, 저희가 정말 친하고 그랬으면 길게 못가지 않았을까 한다. 되도록이면 일적으로만 만나는 관계가 (5주년) 비결이 아닌가 한다”며 “근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서 도움이 됐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김준현은 “우리 셋은 사적으로 자주 만난다”며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해 유민상을 당황하게 했다.

또 김준현은 “요즘에 프로그램이 5주년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5주년 원동력에 대해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이라며 “정말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 누가 봐도 음식을 좋아하는 게 보

이지 않나. 진짜로 먹는 걸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녀이 사람 녀이 모였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녹화가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다려진다. 정말 음식 좋아하기 때문에 먹방의 흥수 속에서도 5년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일점인 김민경도 “5주년 너무 뜻깊다”며 “끝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모습, 다시 시작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 마련했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민경은 “제가 여기서 홍일점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내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느낌으로 해오고 있다”며 “제가 지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먹는 것에서도 지는 게 싫어서 버티는 것 같다”고 비결을 밝혀 웃음을 안겼다.

출연진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김민경은 “유민상 김준현 문세윤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민상은 약간 제일 큰 아빠 같은 느낌이다. 고민 있거나 하면 항상 들어준다”며 “준현 선배는 오빠 같은 느낌이다. 내길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세윤씨는 남편 같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있다”며 “뭔가 항상 배팅목이 돼주고 챙겨주는 느낌이 있다. 굉장히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애정을 보였다.

문세윤은 “작게 시작했는데 조금씩 살점이 늘어나듯 프로그램이 늘어나 기쁘다”고 소감을 덧붙여 웃음을 더했다. 이어 5주년까지 오면서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



개그맨 김준현(왼쪽부터), 유민상, 개그우먼 김민경, 개그맨 문세윤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 5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똥 특집이 위기였다”며 “그때 난생 처음 장염에 걸렸다. 정말 얼얼이 노랗게 됐다. 전 외국 가서 살 생각이 없다”고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김준현은 “저도 장염이 걸린 적이 있었다”며 “그때 몸이 아픈 것보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거들어 웃음을 더했다.

방송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서도 먹방 콘텐츠가 많다. 이 같은 먹방 콘텐츠들과 차별점에 대해 유민상은 “요즘에 먹방이 정말 많은데, 보통 먹방은 양이 많거나 소

개가 많다”며 “보통 차킨 10마리, 짜장만 15그릇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 많이 먹는 게 많다. 저희는 소개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해 봤지만 그렇게까지 못 먹어서 양에서 그분들을 못 이긴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 푸드파이터 먹방이 아니라 푸드러버 먹방”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맛있는 녀석들’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민경은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곳곳에 숨어있는 음식들 맛있게 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에 있는 외국의 유명한 음식, 혹은 외국의 현지 음식을 많이 접해보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현은 “계속 맛집이 계속 생겨나고 우릴 계속 찾더라. 먹었던 음식들도 다른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유민상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먹는 걸 적게 하면서도 다른 걸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맛있는 녀석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뉴스1

김남길 “연기대상? 동료들에 공 돌릴 수 있어 좋아”

“큰 의미 안됐지만 좋았던 것은 직업적으로 당연”



배우 김남길이 SBS 연기대상 트로피로 동료들에게 공을 돌릴 수 있어 감사했지만, 큰 감흥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김남길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

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SBS 연기대상 트로피가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감흥이 별로 없었다. 예전에는 상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왜 노미네이트가 안 됐어요” 하고 물었더니 ‘관객수가 부족하다 보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관객수가 많이 든 영화를 해야지 하고 관객수가 많은 영화를 했더니 그때는 ‘너무 상업적인 영화여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바깥에서 원인을 찾다보니 답이 없었다. 그냥 내가 매력이 없었던 것인데 작품에서 찾았구나. 했다. 상을 받으려고 (작품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시상식은 마음에 두지 말자. 나중에 쥐도 안 받아야지 했었다”며 “큰 의미를 안 뒀지만 좋았던 것은 직업적으로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남길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이나 상대 배우 앞에서 연기하는 것,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것에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두렵고 숨고 싶을 때가 있다”며 “매 작품, 다른 작품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사람 복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설 수 있게 용기 준 좋은 동료들 앞에서 상을 받으니까, 그 얘기를 나누고 그 공을 돌릴 수 있어서 그 상의 의미가 좋았다”고 덧붙였다.

“클로젯”은 사고로 아내와 엄마를 잃은 부녀 상원과 이나가 새집으로 이사를 온 후 이상한 현상들을 겪고 어느 날 벽장이 열리고 이나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김남길은 영화 ‘클로젯’에서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문의 남자 경훈 역을 맡았다.

한편 ‘클로젯’은 오는 2월 5일 개봉한다.

뉴스1

지코, 가온차트 1월 4주차 1위 ‘3관왕’...댄스 챌린지 효과

김재중의 앨범 ‘애요’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



지코 (ZICO)와 김재중이 2020년 4주차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30일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지코 (ZICO)의 ‘아무노래’가 2020년 4주차 (2020.01.19~2020.01.25) 디지털차트, 다운로드차트, 스트리밍차트

에서 1위를 차지해 2주 연속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코는 ‘아무노래’ 발표 당시 안무를 이용한 ‘댄스 챌린지’를 만들어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가수 김재중의 앨범 ‘애요’는 앨범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신은경, 6년만의 스크린 복귀

감성멜로 영화 ‘시호’, 오는 2월 개봉 확정

배우 신은경, 전 에이전시 멤버 김도우 주연의 감성 멜로 ‘시호’가 오는 2월로 개봉을 확정하며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2월 개봉을 확정된 ‘시호’는 죽은 아버지의 간병인 수정(신은경 분)과 그녀를 지키고 싶어하는 우민(김도우 분), 사랑에 있어선 미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감성 멜로 영화다.

자타공인 연기파 배우 신은경이 아픈 사연을 지닌 여인 수정 역을 맡아 6년만에 멜로 장르로 스크린 복귀를 예고했다. 신은경은 이번 영화에서 언어 장애인으로 등장해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눈빛만으로 서사를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분위기를 발산한다. 그동안 강렬한 이미지를 주로 보여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캐릭터에 따뜻한 감성으로 새롭게 도전, 배우로서의 내공과 팔색조 매력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아이돌 그룹 에이전트로

데뷔해 뮤지컬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신에 김도우가 우민 역을 맡아 사춘기 소년의 무르익지 못한 첫사랑의 감정을 섬세한 내면 연기로 표현한다. 또한 각종 TV드라마로 안방 극장을 섭렵해 온 연기파 배우 윤희석이 수정의 삶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지지자 성재 역으로, 배우 성현과 표예진도 이들의 관계에 멜로 시너지기를 더할 예정이다.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공개된 ‘시호’의 메인 포스터는,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련한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는 신은경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붉어진 눈시울로 눈물을 떨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극 중 수정이 선 사할 가슴 아픈 감성 멜로에 기대를 자아낸다.

반대편 하단에 자리한 배우 김도우 또한 고개를 떨군 채 슬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미성숙한 사춘기 소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극



중 우민에게 첫사랑의 시련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온 것인지, 보는 이들의 궁금증이 고조된다. 한편 이들의 사이에 끼어든 배우 윤희석의 모습도 눈에 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수정을 바라보는 그의 안타까운 시선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영화 속 결말에 더욱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가슴을 적실 아련한 첫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감성 멜로 ‘시호’는 오는 2월 말 개봉돼 올 봄 관객들의 마음에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